



2026. 06.27

시간표

17:00 [워크숍] 假春燒 빌린 봄 태우기

19:00 [공연] 함께 만드는 춤

19:45 [잔치] 천장산 산신제

20:25 [공연] 오리정의 꽃무룻

20:40 [상영] 굿빠이

장소

삼태기 마을 쌀집 주차장



제10탄 — 천장산우화예술제 <굿빠이>

안녕하세요. '월장석 친구들' 입니다.

2026년 6월 27일, 십여년간 수없이 오간 삼태기 마을 골목에서 10회를 맞이한 천장산우화예술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가린 산, 천장산(天藏山). 그 이름처럼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살짝 비껴나 있던 이 산자락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하늘 아래 잠시 재밌는 상상과 예술을 할 수 있도록 품어주었습니다. 평범한 쌀집 옆 주차장과 좁은 골목들이 기꺼이 예술의 무대가 되어주고, 일상과 맞닿은 틈새마다 어김없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이 동네가 내어준 다정한 인사 덕분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참으로 부지런히 우리만의 우화를 지어 올렸습니다. 도시의 공백과 일상의 틈마다 기꺼이 예술을 심었고, 우리가 던지고 싶었던 모든 농담과 치열한 질문들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이 이토록 짝 차게 예술이었기에, 우리는 눈물짓는 대신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쫓기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후회 없이 다 해냈기에 가능한 가장 밝은 '굿빠이'를 완성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예술제마다 어김없이 어슬렁거리며 등장했던 늑대는 이제 이 골목에서 잠시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완전히 닫히는 것이 아니라 덮어둔 책장처럼 다음을 기약할 뿐이니깐요. 어느 날 훌쩍,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이 불쑥 등장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악수를 청해올지 모르니다.

지난 10탄동안, 천장산 아래에서 함께 웃고 뒹굴며 이 동네를 예술로 물들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최·주관 : 월장석친구들

협력·후원 :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천장산우화극장, 공유성북원탁회의,
삼태기마을

기획 : 우희서



빌린 봄 태우기

워크숍

연출 - 이민영(앵)

나에게 천장산우화극장, 월장석친구들, 삼태기마을, 천장산우화예술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빌린 봄

월장석과 천장산우화예술제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발견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던 계절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업의 시작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머물 곳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함께 친구를 사귀고 웃고 이야기하던 풍경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이곳의 봄은 당연히 우리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떠나야 할 때가 되어 돌아보니, 그 봄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던 계절이었습니다. 모든 계절이 그렇듯, 빌린 봄에도 돌려줄 때가 옵니다.

태우기

스페인 발렌시아의 축제 '라스 파야스(Las Fallas)'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스 파야스는 겨울 동안 쓰던 목재 구조물을 봄이 되면 불태우며 계절의 전환을 기념하던 풍습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여기서 '태우기'는 무엇을 망치거나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끝을 잘 매듭짓고, 충분히 기린 뒤에 잘 보내주는 의식입니다. 〈빌린 봄 태우기〉역시 실제로 무엇을 태우는 행위보다,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마

지막 순간까지 함께 풍경을 만들고 즐기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설치물은 축제가 끝난 뒤 철거됩니다. 어쩌면 그 철거가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태우기'일 것입니다. 봄을 붙잡는 대신, 마지막으로 그 봄의 꽃을 더 피워 두 손 가득 바라보고 떠나보내려 합니다.

함께 봄 피우기 — 페이퍼 커팅 워크숍

이 봄은 한 사람의 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봄도 혼자 피우지 않습니다.

종이를 오려 꽃과 나비와 새를 더하는 동안, 봄은 조금씩 더 무성해집니다.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한 송이를 더 보태는 그 마음이, 봄을 잘 떠나보내는 가장 다정한 방법입니다. 함께 만든 봄을 함께 바라보다, 함께 작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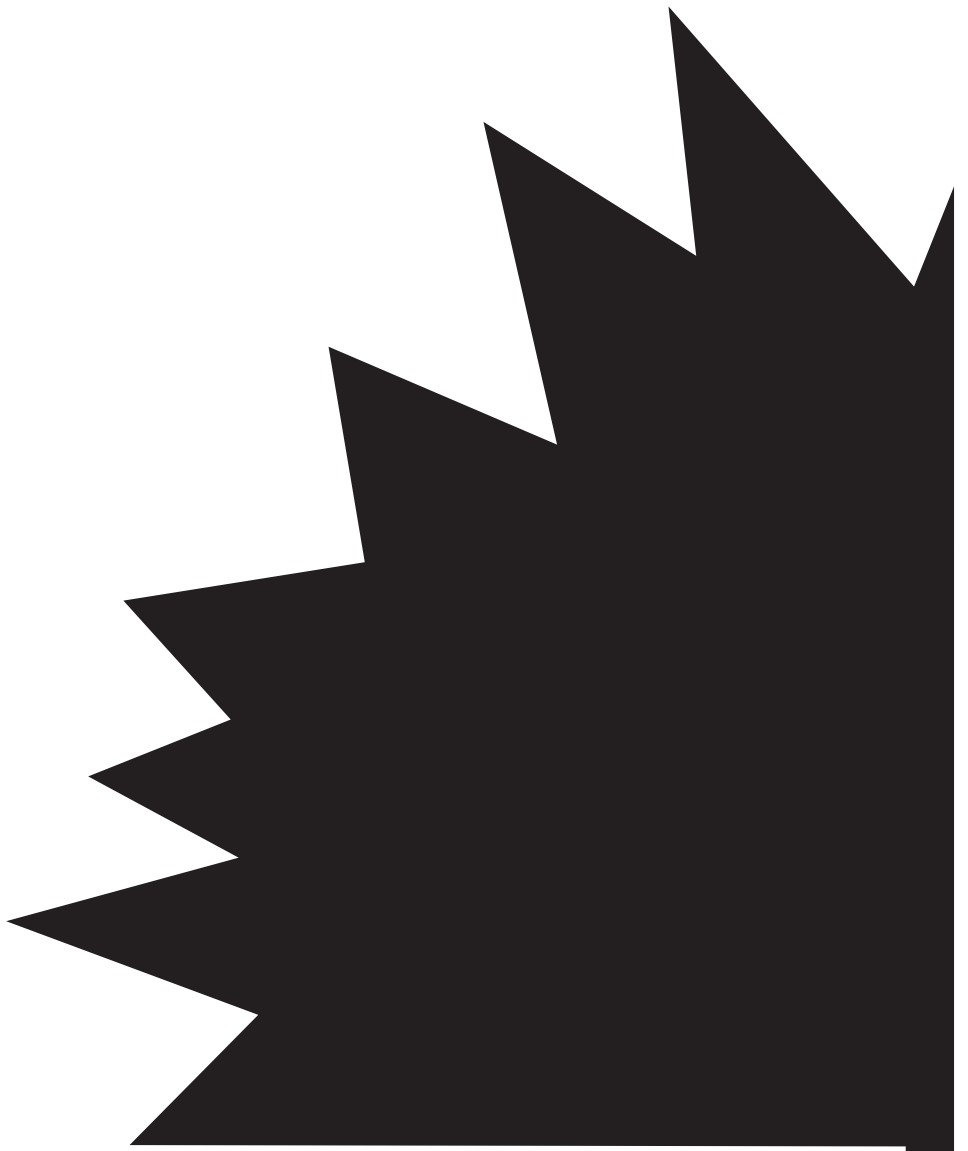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도면을 따라 오려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봄도 한 송이 오려, 이 풍경 곁에 놓아 주세요.

우리가 함께 보낸 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만드는 춤

공연

음악 - 박혜리, 최힘찬

무용 - 장연주

기획 - 린카

공연 소개

린카(Rince)는 아일랜드 춤을 주제로 공연하는 국내 유일의 단체로,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관람하는 문화'보다 '참여하는 문화'를 지향하는 린카의 방식대로,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아이리쉬 음악과 함께 두 명의 뮤지션이 무대를 채웁니다.

아이리쉬 댄스

아일랜드 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아일랜드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 긴 역사가 말해 주듯, 아이리쉬 댄스는 무대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춤이 아닙니다.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공연으로, 공동체의 춤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함께 추는 춤은 그중에서도 '케일리'에 뿌리를 둡니다. 케일리는 사람들이 모여 둥글게 원을 이루거나 줄을 지어 함께 추는 사교춤으로, 화려한 기교나 개인의 뽐냄보다 함께 어울리는 조화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케일리 춤의 묘미는 '돌아가며 만나는' 데 있습니다. 짝을 지어 한 바탕 추고 나면 옆 사람에게로 옮겨 가고, 그렇게 원을 한 바퀴 돌아 처음 짝꿍을 다시 만날 때까지 —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서로의 짝이 되어 보는 춤입

니다.

그래서 이 춤에는 잘 추고 못 추고가 없습니다. 발을 맞추고 손을 잡고 마주 보며 웃는 동안, 잘 추려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함께 즐기는 일만 남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체가 아일랜드에서 직접 배우고 익힌 그 문화를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함께 추는 순서

1. — 다 같이 손을 잡고 둥글게 원으로 섭니다.



2. — 앞으로 모여 네 걸음, 뒤로 퍼지며 네 걸음 (두 번 반복)



3. — 짝궁과 오른손을 잡고 한 바퀴, 왼손을 잡고 한 바퀴



4. — 발 구르기 세 번, 각자 박수 세 번
(두번 반복)

5. — 앞으로 모이며 네 걸음, 뒤로 퍼지며 네 걸음

6. — 짝궁을 마주 보고 서서,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잡고 반 바퀴돌고, 짝궁과 인사



7. — 뒤로 돌아 인사하며 새로운 짝궁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따라 발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원 전체가 하나의 춤이 됩니다.

뮤지션 — 박혜리 × 최힘찬

밴드 '두번째달'을 시작으로 아이리쉬 포크 그룹 '바드(BARD)'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고 아름다운 감성의 월드뮤직을 선보여 온 뮤지션 박혜리.

국악을 포함한 월드뮤직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연주에서 프로듀싱까지 장르와 역할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음악가 최힘찬.

아이리쉬 음악을 향한 애정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소리와 노래. 맨발로 부드러운 흙을 밟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하모니를 들려드립니다.

오리정의 꽃무릇

공연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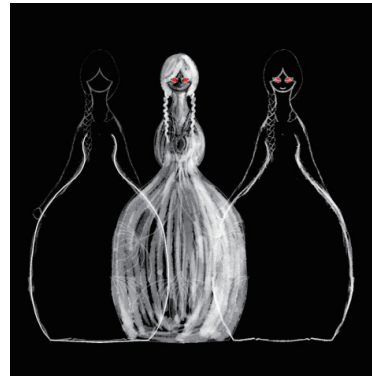
감독 - 김지희

음악 - 홀연(이채원)

연사 - 김시연

페이스페인팅 - 소유미

제작 - 이야기상자



꽃무릇

꽃무릇(석산)이라 불리는 꽃이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입니다. 알뿌리는 약으로 쓰이면서도 잘못 쓰면 목숨을 앗아 갈 만큼 독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호의적이고, 자신을 이용하는 것조차 너그러이 허락하며, 자신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마저 가엾게 여깁니다.

〈칠흑의 오리무중〉 첫 번째 이야기

어둠이 깔린 밤, 오리가 호수를 향해 간다. 안개는 자욱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가는 길에 일곱 가지 어둠을 만나게 되는데...

〈칠흑의 오리무중〉은 '오리'에 담긴 일곱 가지의 미를 소재로, '꽃'으로 상징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호러 연작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오리정의 꽃무릇〉은 라이브 음악과 효과음이 함께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작품 소개

여행자의 이정표가 되어 주던 정자 '오리정'에서, 이루지 못할 사랑과 죽음을 상징하는 꽃 '꽃무릇'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물감을 찾아 산을 내려온 한 승려가 꽃무릇의 붉은 눈에 홀리면서, 득도를 향한 정성과 욕망이 한 곳 차이로 뒤엉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멀지 않고, 득도와 욕망 역시 한 곳 차이.



탱화승

절에서 불화를 그리는 승려입니다. 겨울 성도절에 내걸 거대한 득도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래 사교성이 없어 혼자 작업하는 데 익숙하고, 절과 세상의 일에는 대체로 무심합니다.

시조

3·4조 가락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공연에서는 라이브 음악·효과음과 함께 낭송됩니다. 들어 쓴 줄은 인물이 직접 건네는 말입니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불화 그릴 탕화승이
물감 만들 꽃을 따러 일주문을 나섰더라
붉게 물든 가을 단풍 온천지를 뒤덮었고
걸음걸음 산아래에 꽃무릇밭 탐스럽네
마을까지 5리 남아 세운 정자 오리정 앞
떠나간 이 생각하며 서러워서 저리 우나
세속인이 흐느끼니 탕화승은 우물쭈물
단풍 구경 다시 할까 산 한 바퀴 휘적휘적
마을까지 5리 남아 세운 정자 오리정 옆
다시 와서 살펴보니 꽃무릇밭 파묻혀서

아기야, 아기야.. 흑흑

아직까지 흐느끼니 탕화승은 우물쭈물
오늘은 안 되겠네 다음 기회 다시 올까
하루 지나 생각해도 어찌할지 우물쭈물
그림 한 줄 못 그리고 어찌할지 우물쭈물
지켜보던 원주스님 대로하여 큰 한소리

이래 후에도 이 모양이면 절에서 쫓겨날 줄 아시
게!

한숨 돌린 다음 순간 두 눈앞이 캄캄하네
큰맘 먹고 내려가니 꽃무릇 밭 붉디붉어
당도하여 살펴보니 세속인이 늘었구나
여인은 또 울고 있고 옆사람을 쳐다보니
하얀 사람 꽃밭 속에 고개를 떨구었네
탕화승은 고뇌하며 어찌할지 우물쭈물

절에 갈까 고뇌하며 세속인을 바라보니
마주치자 빨려들 듯 붉디붉은 그녀의 눈
눈이 시큰 가슴 벌렁 머릿속은 막 꼬인 실
빨려드는 두려움에 평온 찾아 눈 감으니
어둠 속이 고요하나 어느 순간 붉은 잔상
어둠 속에 꽃무릇들 송이송이 피어나니
어찌하리 탕화승은 결국 다시 눈을 뜨네
붉디붉은 그녀의 눈 녀를 읽고 바라보다
처음 보는 미색이라 홀린 듯이 물어보네

당신의 붉디붉은 눈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군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내 이름은 꽃무릇... 흑흑

그녀의 피 만병통치라 아픈 이를 주었더니
불로 욕심에 심장까지 훔쳐먹다 죽어가네
그녀 심장 붉었을까 그녀의 피 궁금해도
그녀 심장 빼앗겨서 가슴 자리 시커멓고
그녀의 피 나눠 줘서 손발 온몸 순백이라
유일무이 붉은 곳은 불타는 듯 눈동자뿐
탕화승이 읊소하며 꽃무릇에 간청하길

붉은 눈의 꽃무릇 님, 성도절 그림에 쓸 붉은색이
필요해요. 당신의 눈동자를 가지고 싶어요.

꽃무릇이 미소 짓고 꽃 한 송이 뽑아다가
뿌리줄기 떼어내고 꽃 한 송이 내어주니
탕화승이 고개 숙여 깊이 감사 표하더라
한달음에 산을 달려 작업방에 도착하니
맷돌 같고 절구 빻아 고운 가루 붉은 물감
삼베천에 일필휘지 초 뜨기를 끝마치고
어느새 마무리로 화룡정점 남았으니
어디 보자 붉은 물감 어느 곳에 칠해볼까

석가여래 입술인가 10대 제자 옷태인가
시름시름 주지스님 입적할 날 머지않아
존경 담아 한구석에 조그맣게 그렸으니
웁다구나 양도 적고 주지스님 빛내볼까
자글자글 스님 입술 붉은 물감 얹어보니
굽은 등도 펴지는 듯 검버섯도 사라지고
빛나야 할 석가여래 주지에게 묻혔구나
탱화승은 후회하고 머릿속은 시골벽적
꽃을 따러 봇짐 메고 작업방을 뛰쳐나가
어느샌가 하얀 눈발 하늘부터 훑날리나
승려 눈엔 안 보이고 북풍한설 내달리네
꽃무릇발 도착하여 이리저리 살펴보니
꽃무릇들 하나 없고 하얀 눈만 깔렸더라
숨이 차고 기침 나고 목엔 피맛 눈물 흘러
절망 속에 속이 상해 토약질이 나오더라
한가운데 하얀 눈을 붉은 빛이 뚫고 나와
헐레벌떡 탱화승이 그 자리를 파보더라
파다 파다 붉은빛이 가까울 듯 멀어지니
승려 몸에 눈 쌓이고 승려 손에 눈 쌓이네
탱화승이 파는 손은 느릿느릿 느려지고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움직이지 못하더라
누구인지 다가와서 등을 쓸며 흐느끼니

아기야, 아기야.. 흑흑

탱화승은 눈에 묻혀 떨곤 고개 들 수 없네

날말 풀이

탱화승(幀畵僧) · 절에서 부처와 보살을 그린 불화, 곧 ‘탱화’를 그리는 승려.

성도절(成道節) ·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이룬 날을 가리는 불교 기념일. 작품 속 탱화승은 이날 내걸 큰 그림을 준비한다.

오리정(五里亭) · 마을에서 오 리(약 2km) 떨어진 곳에 세운 정자. 예부터 떠나는 이를 배웅하고 헤어지던 자리라, 이별의 정서가 깃들여 있다.

꽃무릇(석산, 石蒜) · 가을에 붉게 피는 꽃.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상징한다. 알뿌리는 약으로도 쓰이지만 독이 있다.

화룡점정(畵龍點睛) · 용을 다 그린 뒤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찍어 완성한다는 뜻. 가장 중요한 마무리한 곳을 이르는 말.

음악 노트 - 출연(이채원)

〈오리정의 꽃무릇〉을 영상으로 처음 봤을 때는 음악보다 효과음이 먼저 떠올랐고,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라이브로 연주해야 한다면, 음악보다 효과음을 라이브로 만드는 편이 더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폴리 아티스트처럼 이런저런 소리를 탐색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소리 만드는 법은 영상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함을 지향했습니다. 지니야가 이 애니메이션을 호러로 규정했고, 본래 공포는 고요할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웅장해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이야기상자와의 작업은 늘 제게 실험이라 완벽을 기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더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천장산 산신제

잔치, 영상



올해도천장산산신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산신님과 마을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잔치, 또 하나는 그 작별을 화면에 담은 영상 <굿빠이>입니다.

<천장산 산신제>

기획 - 산초

잔치 - 대루미, 올레, 삼태기마을 사람들

산신제의 시작은 언제나 함께 먹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다 보면 평소 서먹하던 사이도 조금은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산신님과 마을분들, 그리고 이곳을 찾은 모든 이가 한 상에 둘러앉습니다.

이번 잔치 음식은 올레와 대루미가 손수 지어 내어 줍니다. 올레는 디저트 3종을, 대루미는 돈까스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자리인 만큼, 정성껏 차린 한 그릇을 나누며 그동안의 시간에 천천히 인사를 건넵니다.

<굿빠이>

출연 - 다잉, 지우, 미란, 이솔, 오배, 앵, 야호, 사자, 봉봉, 얼곰, 연짱, 하성공, 추, 썸, 늦잠, 모글리, 이설, 랑제, 콜라, 레오니, 홍경애, 봄봄, 동명, 강영아, 정산, 누누, 겸아, 민지, 홀연, K, 도현, 쭈, 쌤디, 피노, 에이스, 일지, 희왕, 올레, 졸배, 하루, 김씨 아저씨, 이순자 할머니, 대루미, 세탁소 아저씨, 진미당 사장님 부부, 숙희, 삼태기 마을 사람들, 산초, 지니야, 우희서

만든 사람 - 산초, 우희서, 지니야

2020년부터 마을 한복판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영화 <시네마천국>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산신제가 될지도 모르기에, 산신님과 마을분들 앞에 무언가를 정성껏 지어 올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렇게, 한 해에 한 번 산신께 바치던 마음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차린 자리입니다.

<굿빠이>는 이곳에서 나눈 수많은 작별의 순간을 한자리에 모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해를 피해 그들을 쫓아 자리를 옮기는 마을분들 움직임을 통해, 이곳의 풍경을 담고 싶었습니다.

특별 부록

천장산 산신제를 만들어 온 산초와의 인터뷰

인터뷰어 - 희서

인터뷰이 - 산초

2026년 6월, 마지막 천장산 산신제를 앞두고 산초를 만났다. 천장산 산신제는 2020년부터 서울 한북판의 한 마을에서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열어 온 행사다. 산신께 올리는 의례이자, 영상 상영과 길놀이, 그리고 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잔치가 어우러진 자리였다. 그 7년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흘러왔고, 왜 지금 작별을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 그 궤적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예술 공양

희서 — 천장산 산신제는 매년 마을 사람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잔치’가 큰 자리를 차지해 왔어. 산초에게 잔치는 어떤 의미였나요?

산초 — 특별히 뭘 바라거나 빈다기보다, 그런 자리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만나서 뭐 좀 먹고 뭐 좀 보고 — 그런 자리. 평소엔 누가 좀 밉다가도 그럴 땐 덜 밉다고 해야 하나, 마음가짐이 누그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치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는 거.

희서 — 천장산 산신제로써 영상 상영도 있고 공연도 있고 길놀이도 했잖아요. 이 요소들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산초 — 전체가 일종의 공양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는 예술로 하는 제의죠. 거기에 공연이 있든 영상이 있든 길놀이가 있든, 그게 다 우리 방식의 산신제이자, 예술 공양이라고 생각하고 해 왔던 거예요.

희서 — 천장산 산신제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2020년 첫해는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나요?

산초 — 서울 한북판에서, 동네에서 산신제를 지낸다는 게 너무 신선했어요. 이게 굉장히 희귀한 거다 생각하고 접근했죠. 근데 조사해 보니까 천장산 산신제를 우리 삼태기 쪽에서도 하고, 건너편 동대문에서도 하고, 청량리에서도 하고 산을 둘러싸고 마을마다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니라, 은근히 아직 남아 있는 문화였던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뿐. 그게 또 의외였죠.

희서 — 천장산이 사실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여러 마을이 함께 모시는 게 신기해요.

산초 — 그러니까요. 높지도 않고 유명한 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산을 둘러싸고 마을마다 다 따로 하는 게. 재밌어요.

희서 — 그렇게 시작한 첫해, 2020년 산신제는 어떤 방향이었나요?

산초 — 그때는 ‘마을 신’ 개념이었어요. 이 마을에 아주 오래 사신 분들이 마을을 지켜주는 오방신이 다. 그런 거에 집중했죠. 천장산 산신을 중심에 두고, 마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방신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는, 우리만의 신화 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산보다 마을에 포커스를 뒀어요.

희서 — 그러니까 마을 골목골목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요.

산초 — 맞아요. 동서남북에 중앙까지 더해 오방신을 설정해 놓고, 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들을 불러 만나고, 그러고 산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피날레로 산신님께 다 같이 우리 형식으로 춤을 추면서 제를 지내고. 그 산신제 자체를 영상으로 찍은 거였어요. 그리고 마을 주차장에서 상영회를 가졌죠.

산신은 원래 여자였다

희서 — 산신제를 준비하면서 했던 리서치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뭐였나요?

산초 — 원래 산신령이 대부분 여자였다는 거. 그게 나한테 충격이었어요.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러고 찾아보니까 중요한 산들의 산신은 다 아직 여성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지리산, 가야산, 한라산... 오히려 큰 산들이 그렇게 남아 있고, 작은 산들은 성별이 좀 뒤바뀐 것 같고.

희서 — 왜, 그리고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조사가 됐나요?

산초 — 조선 때 그랬대요. 조선이 가부장적이니까. 고려를 지나 조선에 들어서면서 산신 초상화 같은 게 다 수염 난 할아버지로 대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신은 무조건 남성이라는 식으로 사람들 머릿속 개념이 바뀐 거죠.

천장산 산신이 여자라는 건 도당이 있어서 증거가 남아 있는데도, 경희대 앞 연화사에 천장산 산신각이 있어요. 거기 산신도를 보면 할머니가 아니라 호랑이 탄 할아버지예요. 되게 상투적으로 그려놓

은거죠. 가야산의 정견모주처럼 신화가 유명하게 정확히 박혀 있으면 못 바꾸는데, 마고할미나 한라산 할망처럼 딱 박혀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림으로 다 대체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성별이 다 헷갈려진 것 같아요.

희서 — 저만 해도 동화책에서 산신령이 다 남자로나와서,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어요.

산초 — 그치, 그치. 나도 당연히 산신령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천장산 산신이 ‘할머니’라는 사실에 꽃혀서, 나중엔 전국의 여성 산신령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로 작업이 확장되기도 했고요.

희서 — 예술가들이 이 산신제에 참여하기 전, 그러니까 원래 마을에서 지내던 산신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르신들이 바위에 절을 하는 식이었나요?

산초 — 우리 삼태기 마을에서는 바위까지도 안 가셨어요. 산 올라가는 길에 널찍한 운동터 같은 데에 팔각정 하나 있잖아요. 그 정자에서 막걸리 뿌리고 — 삼태기 마을 회장님이랑 동네 어르신, 부녀회장님이랑 대표적인 분들 몇 명이 가서 막걸리 뿌리고 절하고 내려오시고. 그건 형식적으로 하시고요. 주(主)는 마을회관에서 육개장 같은 거 끓여서 나눠 먹는 잔치였대요.

희서 — 원래부터 잔치가 중심이었군요.

산초 — 삼태기는 그랬고요. 저쪽 석관동은 도당이 있으니까 도당에서 제대로 제사를 지내요. 동대문 쪽에서도 제대로 지내고요 — 유교식으로, 절하고, 제삿상 차리고. 딴 동네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천장산 산신은 되게 많이 흠향(欠饗)을 받는 셈이죠.

희서 — 팔각정있는 곳이 원래 집이 있던 자리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디서 제를 지냈을까요?

산초 — 그전엔 우리 영화에도 나오는 그 위쪽 바위, 거기였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돌무더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돌 하나씩 올려서 생긴 돌무덤. 그래서 그게 거기 있는 것 같다고요. 추측이긴 한데.

희서 — 그러고 보니 우리 산신제가 늘 잔치를 중심에 둔 게, 이 삼태기 마을 본래의 방식을 이어받은 거였네요.

산초 — 그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 예술가들이 마을 사람들하고 더 섞이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큰 목적 중 하나였어요. 친해지려면 잔치만한 게 어디 있어요, 같이 나눠 먹는 거.

해마다 흘러온 길

희서 — 다시 시간 순서로 돌아와서, 첫해 이후로는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1년부터요.

산초 — 2021년엔 그 2020년에 만든 첫 번째 영화 <천장산 산신제>를 수레에 싣고, 마을을 돌면서 상영을 했어요. 길놀이 형식으로요. 수레에 싣고 움직이면서 한 바퀴 돌며 상영을 한 거죠.

희서 — 그다음, 2022년 무렵 만든 영상 <산신령을 믿으시나요>부터 작업의 결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산신제라는 의례를 예술로 ‘재현’하는 느낌이었다면, 이 작품부터는 그 믿음을 작업 안으로 ‘가져온’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전환이 있었나요?

산초 — 가져오고 싶었어요. 말 그대로. 그 환상과 믿음, 그 긍정적인 면을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나로서는 산신을 만난 게 너무 반가웠거든요. 원래 ‘공동의 환상’이라는 게 나한테 화두 중 하나였는데, 산신령이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여서요. 마치 중요한 주제, 제재로 다가와서 그걸 좀 더 파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2022년엔 이게 공연이었어요. 공연에 쓰이는 영상 개념으로 <산신령을 믿으시나요>의 일부를 촬영하기 시작했고요.

희서 — <산신령을 믿으시나요>라는 제목이자 질문 말이에요. 작품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데, 정작 산초 자신의 답은 영상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산초 —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사실 그 질문은 내가 일부러 설정한 거예요. 일부러 좀 바보 같은 질문으로요. “산타클로스를 믿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갑자기 뻘지거든요. 산타클로스가 실재하는 게 아닌데, 믿는 걸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갑자기 전환시켜 버리는 거죠.

저는 산신령을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의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환상으로서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나한테 “믿어?” 하고 물으면 마치 내가 기도라도 드리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기도를 드리고 있긴 해요)

희서 — 그런데 막상 영상 속 마을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다들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산초 — 우문하면 현답한다 — 원래 그게 목표였어요. 우문을 하면 사람들이 현답을 해줄 거다. 진짜 말 그대로 우문현답이 됐죠.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한 거 100% 다 썼어요. 실패한 인터뷰가 하나도 없었어요.

희서 — 함께 작업한 지니야가 영상으로 주술 같은 문양을 그려 넣은 적도 있었잖아요. 마치 그 문양으로 한 해 동안 마을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산초 —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신 들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해주길 — 계속 불러주면 뭐가 생긴대요, 신이. 안 찾으시면 약해지고요. 우리가 산신을 부르기 때문에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개는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 진짜 믿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르고 찾아주니까 산신님 힘이 좀 강해지는 거예요.

희서 —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우리가 산신을 하나 만들었으니, 너도 와서 보고 가라” 하고 사람들을 부르는 듯한.

산초 —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희서 — 그렇게 해마다 형태를 바꿔 이어졌죠.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어떻게 흘러왔나요?

산초 — 2023년에 <산신령을 믿으십니까> 시나리오를 제대로 완성해서 상영했어요. 다큐멘터리로요. 그때는 길놀이도 하고 상영도 하고 다 했죠. 2024년에 지니야와 함께 <천장산 다라니> 미디어아트, 2025년에는 노래자랑도 하고, <그을린 돌, 데구르르>를 상영한 해예요.

희서 — 그러면 이번이 일곱 번째 산신제네요.

산초 — 그러네요.

굿빠이, 다시 거두어 가는 인사

희서 — 이번 마지막 산신제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시작됐어요. 쌀집 앞 벤치에 빛이 드는 시간과 그 빛이 옮겨가는 움직임에 맞춰, 어르신들이 자리를 옮겨 앉는 모습을 기록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회차마다 새로운 산신을 빚어내기보다, ‘우리가 만든 산신’을 거두어들이는 인상이 강하더라고요.

산초 — 응, 맞아요.

희서 — 아쉬우면서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동안 불러 모았던 것을 이제 다시 거두어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산초 —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끼리 인사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인사하고, 산신한테도 인사하고. 사실 나 처음 시작할 때 이거 10년 한다고 약속했었거든요.

희서 — 진짜요?

산초 — 2020년에 시작할 때 ‘10년은 해야지’ 했는데, 그만큼은 못 채운 거잖아요.

희서 — 그럼 어딘가에서 산신제 같은 걸 다시 시작할 생각도 있으세요?

산초 — 언제나요. 지금 가야산에서도 정견모주께 공양을 드리고 있고요. 각 산의 산신들이 저를 부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희서 — 예술로 공양을 한다는 건 일관되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산초 — 그런 것 같아요.

희서 — 근데 보통 공양은 뭔가 바라고 하잖아요. 정말 바라는 게 없으세요?

산초 — 그냥 그 작업만 잘 마무리되고 좋은 결실이면 좋겠다, 정도? 계속 작업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희서가 예술의 ‘생명력’ 이야기를 꺼냈을 때 참 반가웠어요.

희서 — 예술가들이 손을 뗀 뒤에도, 산신제가 마을 사람들 손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인수인계하실 줄 알았거든요.

산초 — 기대하기 어렵죠.

희서 — 넘겨줄 만한 얘기가 있냐고 여쭙보려 했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안 한다”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산초 — 누가 하겠어요. 힘들죠.

희서 — 사실 이번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얼마 전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인터뷰 기록이 우연히 나와서였어요. 다시 보니 그때의 말투도 생각도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게 참 좋고 소중하더라고요.

산초 — 맞아요.

희서 — 그 예전 인터뷰에 <20세기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직접 붙인 제목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산초 — 내가 지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요. <21세기 소년>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그 말을 친구가 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나 만화에서도 쓰이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서는 별 감흥이 없었고 — 소라라는 친구가 자기 스스로 20세기 소녀라는 말을 내뱉었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재미있게 들려서, ‘아, 20세기의 소녀들이구나’ 했던 거죠.

희서 — 인터뷰는 항상 정해지지 않은 대로 흘러가네요.

산초 — 그게 잘하는 인터뷰 같은데요.

7년의 산신제가 그렇게 막을 내린다. 처음 마을을 지키는 오방신에서 시작해, 산신을 믿느냐는 우문(愚問)을 거쳐, 이제는 산신과 마을과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로. 거두어 가는 손길 속에서, 산초는 여전히 어딘가의 산이 자신을 부른다고 말한다. “계속 활동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 그 바람만큼은, 7년 내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인터뷰 끝

천장산우화 예술제 연혁

2018 - 2025, 열 번째를 맞으며

천장산우화극장의 개관과 함께 시작된 천장산우화예술제는, 극장에서 마을로, 다시 도시로 무대를 넓혀 온 우화(寓話)의 축제입니다. 2018년 첫 회로 출발해 올해 열 번째 회를 맞기까지, 그 아홉 번의 발자취를 간략히 모았습니다.

(제4탄부터 명칭이 <천장산우화극장 예술제>에서 <천장산우화예술제>로 바뀌었습니다.)

제1탄 — 천장산우화극장 예술제

2018. 3. 17. - 18. · 천장산우화극장

예술감독 · 김서진

기획 김재석 · 이지우

무대감독 · 권석린

포스터일러스트 · 허혜윤

포스터디자인 · 김민지

천장산우화극장의 개관과 함께 시작된 첫 번째 예술제. 극장을 중심으로 우화 연작 공연을 선보이며 이후 예술제의 정체성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

연극 : <늑대편>, <나비편>, <매미편>, <멋진 것과 옳은 것>

주최·주관 : 월장석친구들

협력·후원: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원탁회의

참여예술가 : 김서진, 유영봉, 정대원, 공하성,
김성환, 오선아, 지성훈, 이진화,
돌곶이청소년연극부(박시현(훈련),
함주현, 조아현, 조재현, 한에스더,
김유리, 전중용)

제2탄 — 천장산우화극장 예술제

2018. 8. 25. - 26. · 천장산우화극장,
삼태기마을, 천장산

예술감독 · 김서진
기획 · 이지우
무대미술 · 정대원
포스터디자인 · 허혜윤

극장을 벗어나 도서관과 숲으로 공간을 확장한 첫 시도. 이동형 공연과 거리극을 통해 장소 기반 축제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주요프로그램

연극 :〈이솝의 매미〉
이동형 공연 :〈티타임〉
거리극 :〈여우와 두루미〉

주최·주관 : 월장석친구들

협력·후원: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원탁회의

참여예술가 : 김성환, 이진화, 김서진, 최정산,
이현수, 유영봉, 오선아, 황기석,
길덕호, 공하성, 허진

제3탄 — 천장산우화극장 예술제

2019. 10. 26. - 27. · 천장산우화극장,

삼태기 마을

예술감독 · 김서진
총괄기획 · 김지희, 이지우
무대감독 · 박만수
공간디자인 · 정대원, 이태훈, 남예슬
홍보물디자인 · 이민

극장을 기반으로 하되 마을과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예술제. 지역 공간과 협력해 외부 공연을 선보였고 공동창작 작업이 다수 진행되었다.

주요 프로그램

연극 :〈멋진 것과 옳은 것〉,〈늑대〉,〈나비〉
거리극 :〈여우와 두루미〉
공연 :〈조정오씨 이야기〉
프로그램 :〈방방방 구령대〉,〈방앗간 운동회〉
〈갈대 어드벤처〉,〈이야기하는 상자〉

주최·주관 : 월장석친구들

협력·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협동조합 문화변합기,
엘마드레, 삼태기마을

참여예술가 : 공하성, 김근환, 김미란, 김상우,
김서진, 김성환, 김이슬, 김정운,
김지희, 길덕호, 문창혁, 오선아,
유영봉, 이진아, 이지우, 이설,
이남주, 이태주, 이민영, 이진화,
장연주, 허진, 허혜윤

제4탄 — 천장산우화 예술제 〈역병, 엇딴리꼬?〉

2020. 12. 19. - 20. · 온라인(유튜브, 페이스북)

예술감독 · 김서진
총괄기획 · 이민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된 예술제. 예술가들이 겪은 사회적 단절과 불안을 전시와 퍼포먼스 형식으로 기록했다.
이 회차부터 명칭이 <천장산우화예술제>로 바뀌었다.

주요 프로그램

개막작 : <나그네는 왜 옷을 벗었던가>
폐막작 거리극 : <바보들의 기차놀이>
전시 : <역병의 포말>·<그 역병은 뭘 봤을까?>
퍼포먼스 : <우울>·<마법돌 잡화점>·<미궁>
디오라마 : <직맨과 펌피>
상영 : <COVID 미녀>

주최·주관 : 월장석친구들

협력·후원: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원탁회의, 삼태기마을

참여예술가 : 관수, 늦잠, 누누, 방사자, 사자, 앵,
연희창작제작소 와락, 졸배, 지니아

제5탄 — 천장산우화예술제 <마을, 광장, 그리움>

2021. 10. 1. - 3. · 천장산우화극장, 쌀집 주차장,
삼태기마을

예술감독 · 이민영
기획 · 우희서, 성다인
접근성기획 · 성다인
제작감독 · 문창혁

춘천 예술가들과의 교류로 지역 간 협업을 시도.
코로나 시기에 축적된 마을 관계망을 바탕으로 아
외 공간 활용이 본격화되었다.

주요 프로그램

거리극 : <철거왕>
퍼포먼스 : <그래도 나는 여전히 떠날 생각이 없
어요>, <그동안 사랑해줘서 고마워>

상영 : <본 적은 없지만>, <천장산산신제 거리
상영>

야외전시 : <불친절한 정자>, <블렌더(BLENDER)>
<원형을 보다, 원형으로 보다>
, <아고라>

설치전시 : <초록색 공기>

프로그램 : <쌍방존재케어플랜>,
<극장지배인 패키지투어>

주최·주관 : 월장석친구들

협력·후원: 서울문화재단,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원탁회의,
서서히학교, 천장산우화극장,
스무디시스템, 앵공방, 삼태기마을

참여예술가 : 공하성, 구지은, 김미란, 김서진,
김성환, 김여정, 김영경, 김은우,
김정윤, 김지연, 성다인, 오선아,
우희서, 이진화, 장승근, 정찬민,
허혜윤

제6탄 — 천장산우화예술제 <월장석 대축제>

2022. 10. 26. - 30. · 월곡동 삼태기마을 일대

예술감독 · 김서진
총괄기획 · 우희서
아카이빙 · 허혜윤
무대감독 · 임석현

월장석친구들의 활동을 집약한 대규모 축제. 예술
제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 다양한 프로젝트가 결합
된 형태로 확장되었다.

주요 프로그램

전시 : <제>, <잘 없는 말이 천리가고 밤말은
죄가 듣는다>

AR 산책 프로젝트 : <천장산요람>
상영 퍼포먼스 : <가방 속 이야기>,
 <천장산산신제>
공연 : <꽃 수다>
가면극 : <적: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연극 : <삶은 연극>, <워크숍 과정 그림 기록>

주최·주관 : 월장석친구들
협력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문화도시성북, 서울문화재단,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원탁회의,
아트라운지 쌀, 서서히학교, 삼태기마을
참여예술가 : 공하성, 구지은, 김미란, 김서진,
김인규, 김지연, 김지은, 김지희,
김헌기, 성다인, 오선아, 이민영,
이현수, 임석현, 현남숙, 허혜운

제7탄 — 천장산우화예술제 〈SF, 우화, 신화〉

2023. 10. 13. - 15. · 천장산우화극장,
삼태기마을,
성북정보도서관 로비

예술감독 · 이민영
총괄기획 · 우희서
조명감독 · 김나은
무대감독 · 윤진상
우화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확장해 SF와 신화까지
포괄하는 실험을 시도. 도서관 로비가 축제 공간으
로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주요 프로그램

공연 : <2023 조정오씨 이야기>, <우호적인 작별
파티>, <언니생각>, <꿈꾸는 로봇>,
 <코스믹 러버>
어린이극 : <두리(Two)>

상영 : <멸종의 대화>, <천장산산신제>
워크숍 : <내 이름은 대루미입니다>
전시 : <성북정보도서관 로비 1층 연계전시>

주최·주관 : 월장석친구들
협력 : 서울문화재단,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원탁회의, 아트라운지 쌀, 앵공방
삼태기마을

참여예술가 : 공하성, 김미란, 김서진, 김선진,
김재인, 김지희, 김호영, 김현애,
김지은, 대루미, 레오니, 류지원,
박성은, 박희도, 안경희, 오선아,
이민영, 이재홍, 이진화, 장연주,
장영, 장영철, 전하늘, 최승혜,
한기민, 한희석, 허혜운, 화양연화

제8탄 — 천장산우화예술제 〈서울의 변신 이야기〉

2024. 9. 8. · 성북정보도서관, 천장산우화극장,
삼태기마을

예술감독 · 이민영
총괄기획 · 우희서
기획팀 · 오겸아, 문혜진
무대감독 : 윤진상
서울이라는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우화적 시선으
로 조명한 예술제.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되
며 관객층 확대를 시도했다.

주요 프로그램

거리극 : <기사들>
공연 : <AI:DUMMY>
상영 퍼포먼스 : <천장산산신제 × 천장산다라니>
인형극 : <HAVE A NICA DAY>
낭독극 : <사유의 사유>

참여형 공연 : <밤산책>
구연동화 : <이야기할머니>
야외 공연놀이 : <길 잃은 꽃들>
워크숍 : <키후위키>, <비나이다>, <책갈피 만들기>
 <버리지마>
포럼 : <무대 위의 동물들>

주최·주관 : 월장석친구들
협력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원탁회의,
 삼태기마을

참여예술가 : 공하성, 길덕호, 김민지, 김서진,
 김성환, 김인규, 김지연, 김지희,
 김지은, 문재희, 박지영, 서상욱,
 성다인, 오선아, 육다솔, 유영봉,
 이남주, 이민영, 이설아, 이승희,
 이채원

제9탄 — 천장산우화예술제 <마지막일지도 몰라>

2025. 8. 31. · 성북정보도서관, 천장산우화극장,
 삼태기마을, 삼태기숲

예술감독 · 이민영
총괄기획 · 우희서

천장산우화극장과 예술마을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공간을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획된 예술제. "마지막일지도 몰라"라는 부제를 통해 예술마을의 풍경과 관계, 기억을 관객과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자 했다.

주요 프로그램

오브제극 : <작은 목마의 모험>
거리극 : <기사들>
참여형 연극놀이 : <붉은 장미, 검은 숲>
상영 : <그을린 돌, 데구르르>
마을잔치 : <천장산산신제>

전시 : <우화산책>
워크숍 : <여신에게 올리는 꽃>, <재료소진 잡화점>

주최·주관 : 월장석친구들
협력 :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원탁회의, 삼태기마을

참여예술가 : 권택기, 강선아, 길덕호, 공하성,
 김두영, 김미란, 김서진, 김선진,
 김이솔, 김유리, 김인규, 김지연,
 김지은, 김지희, 김현기, 서상욱,
 오선아, 이민영, 이인석, 이정윤,
 이진화, 임방호, 조다은, 천명기,
 최세헌, 최애리, 허윤경, 허혜윤

천장산우화예술제 10탄 : 굿빠이

발행일 : 2026년 6월 27일
발행처 : 천장산우화예술제
발행인 : 우희서

© 천장산우화예술제.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